

[기획] >> 3면
레지던셜컬리지

[심층] >> 4면
총장직선제

[기획] >> 5면
글로벌캠퍼스 정기총회

[심층] >> 7면
글캠 기숙사 폭행사건

총장 직선제, 우리의 손으로 총장을 뽑을 수 있을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Council

한국외대 노동조합



우리학교에서 총장 투표권은 오로지 교수협의회에서만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과 교직원 역시 총장 선출에 참여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각각 △교수협의회△총학생회△교직원 노조의 입장을 들어봤다.

▶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윤이영 기자 yyyuna0@hufs.ac.kr

우리학교, 개교 65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5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김종철 이사장△전종섭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민동석 총동문회장△각 처장단△교직원△재학생 등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김인철 총장은 "긴 시간 동안 우리학교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외대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원 교육상과 HUFS Awards를 시상했다. 우리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수를 발굴해 시상하는 동원교육상은 김용애 화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김용애 화학과 교수는 2017년까지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학과장



▲ 개교 65주년을 맞아 김인철 총장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을 역임했으며 NMR구조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은 바 있다.

우리학교 발전에 기여해 명예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HUFS Awards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과 최중현 전 네덜란드 왕국 대사가 수상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을 설립해 기업 기부 문화를 형성했으며 우리나라 대표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중현 전 네덜란드 왕국 대사는 우리학교 외교부 동문회 회

장을 역임하고 외교관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모금하는 등 학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한편 기념식은 교내 역사관을 방문해 우리학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국내 유일 시범공자학원 우리학교에 설립되다



▲ 시범공자학원 설립을 위해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과 중국 공자학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지난달 10일, 중국 북경에 위치한 공자학원 본부에서 우리학교와 공자학원의 시범공자학원 설립 협정이 체결됐다. 이날, 공자학원 협력 학교인 북경외국어대학교 팽룡 총장과 다수의 관계자는 학원에 방문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본격적인 설립을 앞두고 김인철 총장과 마진비 중국 국가한어국제

보급지도소조관공실 부주임은 공자학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공자학원 본부는 중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를 홍보하고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동시에 원활한 시범공자학원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시범공자학원 설립 체결은 우리학교가 국내 유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학교는 중국 공자학원 본부로부터 시범공자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교사 등을 지원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가장 빠른 모바일 투자
키움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3884호(2018.10.22)
키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8-01271호(2018.10.22)

- 키움계좌개설**
계좌개설도 스마트폰으로
- 주식**
영웅문S
- 선물옵션**
영웅문S Futures
- 야간선물옵션**
미국주식
영웅문S Night
- 채널K**
실시간 증권방송
- 하우투스탁**
무료증권교육

키움 ISA
수익률과 안정성, 편리한 가입!

펀드, ELS 등 금융상품
키움자산관리

중국주식/해외선물
FX마진
영웅문S World

키움 블로그
투자상식에서 시황, 리포트까지!

키움 페이스북
매일매일 투자이슈를 쉽게!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원금초과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계약잔고가 유지종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는 위험수준이 없으나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합투자증권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유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0.2%~0.8% 모럴포드몰리모탈 상이)가 발생합니다. 주식거래수료는 0.015%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19 학생 민주혁명 59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수여식 진행돼



▲ 4.19 학생 민주혁명 59년 기념식 및 장학금 수여식 기념촬영

지난달 19일 오후 1시경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4.19 학생 민주혁명 59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행사엔 △4.19민주혁명동지회 측의 류제봉 회장△김수형△신광섭△허철부△이기후△홍용기 동문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선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김봉철 서울 학생·인재개발처장△김수완 글로벌 학생·인재개발처장△이재원 대외협력처장△이선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이선범 비대위원장) 및 학교 관계자들과 장학생들이 참석해 함께 행사를 빛냈다. 행사는 이재원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김수완 글로벌 학생인재개발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류제봉 회장은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민주주의인 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과 4.19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또한 이선범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 기틀을 다지신 선배님들을 만나 뵈게 돼 영광이다”라며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곳곳이 민주주의의 빛을 밝혀오신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내 현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각오를 되새겼다.

이어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선 4.19 정신을 이해하고 학업 성취가 뛰어난 이해주(서양어·스페인 16), 이성연(자연대·통계학 18) 학생이 각각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제10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 열려



▲이덕선 장학금 수여식 기념촬영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이번 해 장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덕선 장학금의 모든 장학생들이 우리학교 해외동문 연합의 중심이신 이덕선 이사장님처럼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인재로 거듭났으면 한다”며 학생들에게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말을 전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나의 고향과도 같은 우리학교에서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준비해줘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장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세계로 나아가 우리학교의 또 다른 장학금 기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며 격려사를 남겼다.

이번 장학금은 뛰어난 학업 성취로 타의 모범이 된 학생 6명에게 수여됐다. △안현진(일본·융일지 18)△김아연(아시아·아랍어 14)△조우현(중국·중언문 14)△남가비(동유럽·폴란드어 18)△박경운(공과·전자 14)△차형주(공과·산업경영 14) 학생이 각각 장학금을 받았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서울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터키문화원)의 시무식 우리학교에서 개최



▲터키문화원 시무식 기념촬영

지난달 12일 금요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서울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터키문화원)의 시무식 및 저녁만찬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시무식엔 △오종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과장(서울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원장) (이하 오원장)△오지규로 잔 부원장△에신 에르친 터키 대사△메흐멧 구르칸 터키항공 한국법인장△김인철 우리학교 총장△관련 부·처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해 시무식 개최를 축하했다.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Yunus Emre Institute)는 터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원으로 2009년 터키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이는 전 세계 48개국에 약 58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터키어 보급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에 터키-아제르바이잔어학과가 있어 이번 해 3월 1일에 터키문화원이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2층에 개설했다. 외국어공공기관이 우리학교에 들어

온 것은 우리나라와 터키의 긴밀한 문화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학교에 개설했던 터키문화원은 일본에 이어 동아시아에 설립된 두 번째 문화원이며 곧 중국 북경에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오원장은 “터키문화원을 통해 터키의 무·유형 문화재에 대해 알고 조만간 터키 커피에 대한 전시회도 있을 예정”이라며 “다음 해에 국제 여름학교에 대한 행사, 일반인을 위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유누스엠레: 오늘날까지 터키인 사이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시인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우리학교 ‘선배와 함께하는 JOB코칭데이’ 구름 인파 몰려



▲현직 선배와 상담하기 위해 재학생들이 모여 있다.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JOB코칭데이'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우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이하 대학일자리본부)와 진로 취업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와 후원 하에 진행됐다. '현직 선배와 함께하는 JOB코칭데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 중인 현직 선배와 재학생의 1:1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선배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로, 재학생들은 조언을 구하는 멘티로 참석했다. 이에 재학생들은 현직 선배들에게 취업을 준비했던 경험과 현업에서 느꼈던 점들을 직접 묻고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엔 △CJ대한통문△KT skylife△NH농협은행△삼성전

자△하나투어△현대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망라한 약 60개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동시에 53개의 직무에서 75명의 선배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미자 진로취업지원센터 팀장은 “선배들의 취업 후기와 노하우를 직접 들으며 재학생들이 생생한 취업현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동시에 “현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 재학생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박병식 강의실 헌정식 거행돼



▲박병식 강의실 앞에서 박병식 회장과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지난 1일 서울캠퍼스 교수학습개발원 203호에서 박병식(포르투갈 67, Bradcal Inc. 회장) (이하 박회장) 강의실 헌정식이 진행됐다. 이날 강의실을 헌정 받은 박회장은 1972년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식품유통사인 '브래드칼(Bradcal)'을 한인 최초로 설립한 창업자이다. 박회장은 우리학교에 학과 장학금 및 발전기금 명

목으로 1억 원을 기탁한 바가 있다. 우리학교는 이를 기념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수학습개발원 203호를 '박병식 강의실'로 지정해 헌정했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이재원 대외협력처장은 “포르투갈어과 동문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의 개교 65주년 HUFs AWARDS 수상에 이어 박병식 회장의 1억 원 기부로 포르투갈어과 영광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며 학교를 향한 포르투갈어과 동문의 사랑을 언급했다. 이어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우리학교에서 끈끈한 선배 사이를 자랑하는 학과 중 하나인 포르투갈어과의 경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학교를 잊지 않고 후배사랑을 적극 실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후배들을 위해 귀한 뜻을 보인 박병식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축사를 전했다. 박회장은 “오랜만에 미국에서 돌아와 학교를 방문해 세월의 흐름을 새삼 실감한다”며 “그 세월 동안 학교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포르투갈어과 후배들도 항상 학업에 정진하며 꿈을 이루는데 노력하길 바란다”며 학교와 후배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동대문구 세 학교의 교류의 장, '외경시전' 개최 예정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동아리연합회가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외경시전'이 개최될 것임을 알렸다. 외경시전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경희대학교△시립대학교가 학교별로 테마를 정해 교류 및 대항전을 펼친다. 행사는 각 학교의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마는 △공연△체전△알파로 구성돼 있으며 알파에는 학술세미나가 속한다. 외경시전을 통해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인접 대학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일 외경시전 외대 지부장은 “세 학교가 동대문구에 위치해

지역적 인접성을 갖춰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행사를 기획했다”며 행사가 기획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단순히 행사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현재 우리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외경시전의 행사를 구성하고 계획하는 '외경시전 기획단'을 모집 중이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2020년 레지던셜 컬리지 시행 예정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는 2020년 3월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레지던셜 컬리지(이하 RC)라 불리는 기숙사 의무 생활이 시행될 예정이다. RC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영어 프로그램△교시 영어 프로그램△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과 같은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한다. 교과과정 또한

참여하는 단과 대학별로 상이하다. 현재 글로벌캠퍼스 7개 단과 대학 중 △공과대학△자연대학△경상대학의 참여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초기성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이하 부총장)을 만나 RC 프로그램 도입 목표와 진행방식을 알아보고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리액션(이하 총학)의 진행방식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A동

◆레지던셜 컬리지 도입 계기와 목표

부총장과 의 대화에 따르면 이번 해 수능 응시 인원과 대학입학 정원이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측(이하 집행부)은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집행부는 이번 해 3월 모의고사를 치른 인원이 약 40만 명이라고 파악해 최종 수능 응시 인원을 약 45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대학입학 정원을 약 50만 명으로 보았을 때 수험생은 점차 줄어들 것이기에 우리학교가 지금보다 수준 높은 학교로 변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집행부는 RC를 도입해 학교 수준을 유지 및 상승시키기로 했다. 현재 일부 RC 프로그램은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다가오는 2학기엔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RC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학교가 글로벌 융합 캠퍼스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융합의 목표는 본인 전공과 더불어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해당 목표 설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집행부는 사회에서 우리학교 출신이면 영어는 당연히 잘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그것이 사회의 요구라면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는 동시에 입학처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었다. 입학처에 따르면 가장 힘든 일은 "우리학교에 왜 입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RC가 도입됨에 따라 당당히 대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과과정 및 시행 예정 프로그램 방식

RC에서는 단과 대학별로 한 학기 동안 영어몰입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2020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기존 교양영어 학점에 RC 영어몰입교육 학점을 더해 총 9학점을 이수한다. RC 영어몰입교육은 수준별로 △A반△B반△C반을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향 또한 고려하고 있다.

기숙사 프로그램의 경우 0교시 영어 프로그램인 '굿모닝 잉글리쉬(가제)'와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강사 수의 부족으로 각 반마다 요일별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은 6명당 한 명씩 외국인 유학생을 배정해 총 7명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구성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집행부는 참여대학 소속 이외의 학생들도 RC 프로그램에 참여할 방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참여하지 않는 단과 대학 학생은 RC 커리큘럼에 맞지 않기 때문에 0교시 영어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지원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비를 내야 한다. 모든 RC 프로그램은 기숙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참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C 프로그램 도입 초반 언급됐던 4차 산업 혁명 교육은 1학년 교양 과목을 고려해 코딩 교육 등을 기획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레지던셜 컬리지 기숙사 운영 방식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RC 신입생 약 800명이 두 학기에 걸쳐 어림잡아 400명씩 기숙사에 입사한다는 점이다. 학업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한 학

기에 모든 학생을 입사시켜야 하지만 0교시 영어 프로그램의 강사 수 부족으로 인해 두 학기에 걸쳐 입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단과 대학의 신입생이 먼저 입사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신입생들은 영어 수준별로 나눠 방을 배정받는다. 또한 신입생 6명당 영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을 한 명씩 배정하고 이들에게는 장학금 또는 기숙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재학생들의 기숙사 입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 총 2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캠퍼스 기숙사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려했던 재학생들이 차별받을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신입생 또한 입학정원의 1850명 중 1120명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다. 이중 약 30% 비율에 해당하는 RC 신입생은 기존에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이기에 신입생에게도 문제될 일은 없다.

RC 영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글로벌캠퍼스 7개의 모든 단과 대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기숙사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새로운 기숙사를 짓는다면 최소 몇 명을 수용해야 운영상 손실이 없었지에 대한 조사는 끝난 단계다. 신축 기숙사는 영어마을 형태로 만들 예정이다.

다만 양 캠퍼스 합동 진행에 관한 논의는 보류 중이다. 서울캠퍼스는 기숙사 여유 공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캠퍼스의 RC 운영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면 향후 송도에 있는 우리학교 부지에서 합동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C에 대한 리액션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조사결과

총학의 RC 관련 설문 조사 질문은 크게 4가지로 △RC에 대한 찬반 의견 △RC가 대학 선호도에 미칠 영향 △RC 도입이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학교에 전하고 싶은 말로 구성됐다. 앞선 설문 조사에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 980명이 응답했으며 RC에 대한 반대 의견이 7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은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일에 중앙운영위원회와 부총장과의 면담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 진행 상황을 업로드하겠다고 했으며 면담 결과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Hufs Dorm 현황

남학생, 여학생 : 계 2,240명 (2인 1실 / 4인 1실)

▼ 현재 신입생, 재학생 50 대 50 비율로 기숙사 배치 중

건물명	건물	남	여	합계	비고
Hufs Dorm 제2기숙사	A동	-	678	678	신기숙사
	B동	400	-	400	
	C동	-	652	652	
Hufs Dorm 제1기숙사	D동	-	208	208	구기숙사
	E동	302	-	302	
합계		702	1,538	2,240	



▲ 초기성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9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9학년도 후기 입학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9. 4. 1(월)~4. 5(금)	4. 27(토) 10:00	5. 9(목) 14:00	5. 13(월)~5. 17(금)
일반전형	2019. 5. 7(화)~5. 13(월)	6. 1(토) 10:00	6. 13(목) 14:00	6. 17(월)~6. 21(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 장학금 혜택
 -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장 직선제, 우리의 손으로 총장을 뽑을 수 있을까?

최근 '총장 직선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의 경우 이미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시발점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제40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 리액션이

첫 번째 공약으로 '총장 선출권 재정립'을 제시했으며 지난달 19일 양 캠퍼스의 총학은 교수협의회와의 면담 진행을 위해 교수협의회 측에 공문을 전달했다. 대학 사회에서 일명 뜨거운 감자인 총장직선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봤다.

◆ 총장 직선제를 향한 우리학교의 행보

총장 직선제란 기존에 교수들이 갖고 있던 총장 선출권을 학교 관련 구성원과 나눠 다양한 이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4년마다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총장후보는 과반수가 출석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의 득표 순위에 따라 2인이 확정된다. 두 후보자는 우리학교 법인에 추천되고, 법인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법인에 추천된 총장후보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교수협의회에게만 제공되며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투표권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 대리인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와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임명제가 혼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우리학교는 제11대 총장선거를 시행했다. 서울캠 총학이 발표한 1차 투표 결과 보고에 따르면 1,534명의 학생이 참여한 학생 모의 투표에서 기호 2번 유기환 후보가 31.3%로 1위를 차지했고 기호 3번 유태영 후보가 25.2%로 2위를 차지했다. 428명의 교수가 참여한 실제 투표에선 기호 6번 김인철 후보가 29.0%로 1위를 차지했고 기호 2번 유기환 후보가 13.8%로 2위를 차지했다. 법인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기호 6번 김인철 후보를 제11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총장 선출권 재정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교수협의회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교수협의회는 이에 응해 지난 1일 양 캠퍼스 총학과 면담을 진행했다.

◆ 교수협의회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면담

지난 1일 서울캠 본관에서 △김용련 제21대 교수협의회 회장·김형래 제21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장은영 제21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 17) 제53대 서울캠버스 비상대책위원장·△송민지(일본어·일어문 17) 제53대 서울캠버스 부비상대책위원장·△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 제40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 등이 함께 총장 직선제에 대해 면담을 나눴다. 총장 직선제에 대해 김용련 제21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용련 회장: 현재 총장 직선제에 관해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 집행부는 언제든지 학생들과 논의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 절차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총회를 통해 안전이 상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잡은 후 제안을 해야 평의회에 보고해 논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학 학생들이 총회에서 민주적 총장 선출 방식을 요구했다는 것만 보고받으면 교수협의회 측은 이를 평의회에 보고할 때 학생들이 총장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도에서 논의가 그치게 됩니다. 평의회 구성원이 이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방안·△구성원·△비율 등을 정리한 방안을 만들길 바랍니다.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최소한의 직권으로 다음 평의회 때 학생들과의 공식적 면담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총장 직선제를 수면 위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 차이는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실행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입장

1. '총장 직선제'에 대한 교수협의회와의 면담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글캠 총학: 현재 학교 관계자들은 총장 선출권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정기총회 때 많은 학우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여전히 총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서로 조율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 캠퍼스 총학은 빠른 시일 내 총장 직선제 도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서울캠 비대위: 교수협의회가 총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 조율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학교 역사상 양 캠퍼스 총학이 함께 움직인 것이 처음인 만큼 함께 협력해 학생들의 요구안을 신속히 실현할 것입니다. 해당 안전에 대해 3자 협의회를 이뤄 기간을 빠르게 정리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총장 직선제'가 진행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캠 총학: 총장 선출권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총장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해 유권자 중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투표권이 있는 교수 중심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총장 후보들은 계속해서 교수 중심의 발전 전략만을 추구하며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소외시킬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총장 선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울캠 비대위: 총장 직선제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며 민주적인 우리학교를 위한 학생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 직선제를 통해 우리학교의 불통행정의 한계점을 벗어나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총장이 먼저 학생을 위한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3. 앞으로의 계획 및 방향은 무엇인가요?

글캠 총학: 무엇보다도 교수협의회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 빠른 시일 내로 움직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요구하기 전에 학교와 총장이 솔선수범해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캠 비대위: 이번 해가 아니면 총장 선출권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돼 급하게 내부 회의를 진행했고 곧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대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에 대한 학우분들의 관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 캠퍼스 총학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교직원 노조 입장

Q. 노조 측에선 '총장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기일 전국대하노조총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지부장: 가장 좋은 총장 선출 방법은 3자 협의회가 한 테이블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교수협의회는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다른 구성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배척해왔습니다. 교수들은 총장 선거권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나눠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7년 제11대 총장 선거 당시 노조는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회장은 해외에 나간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총장 선출권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를 가지자는 태도인데 저희 노조 측에선 이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수가 뽑는 후보 중 1등인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 되다 보니 법인 쪽에서도 순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교수에 의해 뽑힌 총장은 대학을 운영할 때 나머지 구성원을 배제한 채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기 위해 법인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 부여된 임명권을 가진 것은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나서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총장을 뽑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다른 학교는 총장 선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지난해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총학은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대학원 총학과 함께 IT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제반 자료 준비·△성명서 발표·△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의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대학본부·△교직원 노조·△교수협의회 등 학내 구성원 대표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총장 선출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시행된 총장 선거는 완벽한 직선제는 아니었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 학생 참여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를 공론화해 교수협의회, 노조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 총학 또한 지난해 9월 총장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고려대 안암캠퍼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내 전 구성원의 대표인 고려대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민주적이고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현재 △법인·△교수·△교원·△직원·△학생 등 30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총장 최종 후보 3명을 결정하고, 이사회가 이 중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고려대 총학은 "30명이 참여하는 간선제로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총장을 뽑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총학의 강력한 요구에 지난달 22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총장직선제 도입 여부를 학교법인과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7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에선 개교 이래 최초로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총장직선제가 시행됐다. 선거 결과,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및 정유라 특혜 파문 등에 대한 교수 및 학생 시위를 이끈 김혜숙 교수가 총장으로 당선됐다. 이화여대의 경우 △교수·△직원·△학생·△동문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 의해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고 그 결과 투표 값 반영 비율은 △교수 77.5%·△직원 12%·△학생 8.5%·△동창 2%로 정해졌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19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회화과정, 방학특별과정, FLEX 어학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하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9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5. - 12.20.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7.16. - 07.31.
야간과정	10주 야간회화과정	8월	08.05. - 10.10.
	10주 야간회화과정	10월	10.14. - 12.19.
주말과정	14주 주말과정	2월, 8월	08.31. - 12.04.
	FLEX 대비과정	3월, 9월	09.21 - 12.28.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8월	08.31. - 12.14.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fl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성	교육언어	강사진	절차	교육특전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원어인(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주중 및 야간과정	02-2173-2515	fltc@hufs.ac.kr
주말과정	02-2173-2525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edulife@hufs.ac.kr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 3518	

2019 상반기 글로벌캠퍼스 학생회 정기총회, 그 결과는?

지난달 10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노천극장에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2019 상반기 정기 학생 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이날 1033명의 학생들이 노천극장 앞에 모였다. 글캠 총학생회 '리액션(이하 총학)은 △총장 선출방식 재정립△법인의 법정 부담 전입금 전출△교수 및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상호존중 및 이해심 마련△스마트 도서관·공학관·자원과학관·교양관

리모델링 축구△학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기구 확충△학생 요구에 의한 학사제도의 전면적 개편△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범 학교 차원에서의 조치시행△인문경상관 24시간 개방 요구△백년관 24시간 개방 요구까지 총 9가지 안건을 다뤘다.

◆총학의 성과와 업무보고

안건 소개에 앞서 총학은 지난 1월 1일부터 정총까지 약 4달간의 공약 이행률을 밝혔다. 4월 10일 기준으로 총학은 선거 당시 약속했던 26개의 공약 중 총 8개를 이행 완료했다. 진행 중인 공약은 12개이며 진행 예정인 공약들은 6개로 각각 △23%△46%△30%로 추산한다. 이날 총학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행을 100%라는 수칙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총학은 등록금 심의 위원회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업무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학교 대표 4인△학생 대표 4인△외부 참고인 1인 총 9인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등록금 동결 시안을 심의했고 그 결과 작년과 같이 동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송도 지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설득력 있는 예산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총학은 우리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부족한 법정부담금을 추가 요구했다고 전했다. 과거 동원육영회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했으며 이에 대해 총학은 추가적인 부담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학 측은 학교가 송도개발 비용에 2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양관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안 7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앞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총에서 다뤄진 9개의 안건

이번 정총에서 다뤄진 안건은 총 9개이다. 첫 번째 안건은 총장 선출 방식 재정립, 즉 총장선출권 학생 직선제였다. 총학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교의 대표를 학생이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학교의 총장 선출권은 오직 교수들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총학은 "대학은 엄연히 △학생△교수△교직원이라는 세 주체가 어우러진 공간"이라며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학내 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에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과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교수 측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안건은 학교 재단의 법정 부담 전입금이였다. 우리학교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설립한 사립 대학이다. 총학은 "사립대학의 법인 재단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법상 학교 재단이 학교 측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학교에는 60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원육영회는 그 이후에는 현저히 적은 금액만 지출했다며 총학은 현재 동원육영회가 학교를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기본적인 법정 부담 전입금을 전출하지 않는 법안은 불필요하다"며 "동원육영회가 법정 재단 전입금을 반드시 전출하고 동시에 현재 우리 학교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원육영회에 법정 부담 전입금 추가 전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안건은 교수 및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상호 존중 및 이해심 마련이었다. 총학은 "학생들이 교직원과 교수에게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올바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 안건은 △스마트 도서관△공학관△자연과학관△교양관 리모델링 촉구였다. 어문관, 인문경상



▲정총 시작 전 노천극장에 모여있는 학생들



▲노천 극장에서 열린 2019 상반기 글로벌캠퍼스 학생회 정기총회

관은 이미 리모델링이 됐지만 △도서관△공학관△자연과학관△교양관은 낡아 낙후되고 있다. 심각성을 느낀 총학은 "교내 노후화된 강의실 및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신속히 시행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학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기구 확충(CCTV, 불법촬영 점검 기기)이다. 총학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안전보장과 학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및 기구 확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학내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은 날이 날아가고 있고 특히 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적어도 우리학교 캠퍼스 내에 선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 안건은 학생 요구에 의한 학사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다. 이는 △학생 당 시수 불일치 과목 개설 금지△지원어강의 절대평가 전환△동원역대학 전공 이수 학점 완화 등을 의미한다. 총학은 "학생들은 학사제

도에 지속적 영향을 받는다"며 "학점 당 시수 불일치 교과목과 동원역대학의 전공 이수학점이 지나치게 배정돼 학생들은 수업 선택권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히며 학교 측에 개선 요구의지를 밝혔다.

일곱 번째 안건은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시행이다. 이 안건은 7+1 프로그램 정원 확충과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 및 인턴십 확대 등이다. 총학은 "실업률은 날이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학생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졸업 후 원활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안건은 인문경상관과 백년관의 24시간 개방 요구다. 현재 인문경상관은 10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백년관은 평소엔 10시까지 개방하지만 시험기간에는 1시까지 개방한다. 총학은 △학습권 보장△학생권위 보장△학생들의 요구 응답 차원에서 각 시설의 24시간 개방을 요구할 예정이다.

위 9개 안건들은 1033명의 정총 참여자 중 806명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

◆학생들의 질의응답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P(국제지역·아프리카19) 씨는 "현재 우리학교 학식 메뉴가 지나치게 획일화 돼 있다"며 "다양한 메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총학은 "동의한다"며 "이 내용을 생활협동조합 측에 알려 다양한 식단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P(국제지역·브라질 19) 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도 권역을 나눠 거리점수를 분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총학은 "정총 2주 전 기숙사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며 "합리적 기준 하에 거리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학교 측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안은 차기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생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M(인문·언어인지19) 씨는 "통학버스가 5시 50분을 마지막으로 운행하여 그 시간 이후 귀가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당 시간 이후에도 버스를 운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총학 정책 국장은 "해당 안은 총괄지원팀과 학교 측 업체와 논의 후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면 학교측과 의논 후 야간 셔틀을 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학 인터뷰

글캠 총학생회장 한준혁(동번역·중국어 16) 씨(이하 한 회장)는 "총회 의결안이 통과된 순간과 기타 토의 시간이 정총에서 만족스러웠던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1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했고 그중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소중한 안건에 대해 찬성한 덕분에 학교 및 교수 사회와 대화할 때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토의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학내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줬다"며 "정총을 통해 학생들의 불만해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앞으로 총학은 정총에서 학생들이 실어준 힘을 동력삼아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생각"이라며 "공약 이행은 2학기 개강 전까지 공약 이행률을 60%선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장직선제라는 안건에 대해 학생이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닌, 학교의 당연한 일원이자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 회장은 "최근 학생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정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주는 학생들을 보며 아직 학생사회가 살아있으며 함께 연대해 더욱 큰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 일원들 모두 주어진 임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처럼 소중한 의견을 꾸준히 내주시길 바라며 총학을 향한 응원과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宣言書

HK세미오시스연구센터 · 외대학보 공동기획



번역 권경애
일본어통번역학과 교수
감수 사카구치 사야카
(坂口清香)
일본어통번역학과 조교수

我々はここに、我が朝鮮が独立国であり、朝鮮人が自主民族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これをもって全世界に告げ人類平等の大儀を表明し、これをもって子々孫々に教え伝え民族自存の正当な権利が永久に享有されるようにする。五千年に及ぶ歴史の権威をもってこれを宣言するのであり、二千万の民の忠誠を集結してこれを広く知らしめ、民族の永久不変の自由なる発展を図るためにこれを主張するのであり、人類の持つ良心の証しに基づいた世界改造の大きな機会と時運に合わせ共に進むためにこれを提起するのである。これは天の命令であり、時代の趨勢であり、全人類の共同生存権が正当に発動したものである。天下のいかなるものもこれを阻止抑制することはできない。

旧時代の遺物である侵略主義や強権主義の犠牲となり、有史以来の数千年間で初めての異民族による制圧に痛み苦しめ、既に十年が経過した。この間、剥ぎ取られ失われた我が民族の生存権はいかほどであり、新鋭かつ独創的な考えをもって世界文化の大潮流に寄与し補益しうる機会をいかほど失ったであろうか。

ああ悲しいことよ！久しく続く悔しさと憤りを広く知らせようとするならば、目下の苦痛から逃れようとするならば、将来の脅威を取り除こうとするならば、抑圧され萎縮した民族の良心と国家の道義を奮い起こして伸張させようとするならば、各々の人格を正当に発展させようとするならば、かわい이子供達に恥辱的な財産を残さないようにするならば、子々孫々の永久かつ完全な慶びと幸せを望むならば、最大の急務は民族の独立を確固たるものにすることである。二千万の民の各個人が心に刃を抱き、人類共通の正義感と時代的な良心が正義という軍隊と人道という武器で援護してくれている今日、我々が進んで戦えば、いかなる強敵であっても打ち砕けずいられようか。退いて何かを志すならば、いかなる意志であっても実現されずいられようか。

一八七六年の日朝修好条規以降、折々で結んだ各種の約束を破ったからといって日本の裏切りを責めるつもりはない。日本の学者は教壇において、日本の為政者は現実において我が先祖の遺産を植民地と見なし、我が文化的民族を野蛮人扱いし、ただ征服者としての快感を貪ろうとするのみであり、我々の悠久なる社会基盤や卓越した民族心理を無視した。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日本の不義を責めるつもりはない。自らを策励するのに忙しい我々に他人を恨む暇はない。過去のことを責め、善と悪に分けて議論する暇もない。今日、我々に与えられた任務は自己の創造のみであり、決して他人の破壊にあるのではない。厳粛な良心の命令にしたがって自己の新しい運命を開拓するのみであり、決して旧怨と一時的な感情でもって他人を非難、攻撃、排斥するのではない。旧思想や旧勢力に囚われている日本の為政者らの功名心によって犠牲となった不自然かつ不合理な錯誤状態を改善し、自然かつ合理的な正道へ帰還しようとするのみである。

そもそも民族的な欲求から出されたものではない日韓併合という結果が、結局のところ姑息な威圧と差別的な不平等をもたらし、虚飾に満ちた統計的数字の下で利害の相反する両民族の間に、永遠に和動しえない恨みの溝を作り深める一方であったこれまでの実績を見よ！勇猛果敢な精神で過去の誤りを正し、真正なる理解と同情に基づく友好的な新局面に向け現状を打開することが、双方の間に災いを遠ざけ、福を呼ぶ近道であることをはっきりと知るべきではなかるうか。また、憤りを抱き恨みを持った二千万の民を威力でもって拘束するのは、単に東洋の永久なる平和を保障する方法でないのみならず、これによって東洋の安全と危険の主軸である四億にのぼる中国の日本に対する危惧と懸念がますます濃厚になり、その結果として東洋圏全体が共倒れする悲運を招くに違いない。今日の我々の朝鮮独立は我が朝鮮をして正当な生存の喜びを遂げさせると同時に、日本をして悪の道から抜け出て東洋の擁護者としての重責を全うせしめ、中国をして夢にも忘れられない不安や恐怖から脱出せしめることである。また、東洋の平和を重要な一部とする世界平和、人類の幸福に必要な一段階ともなるのである。これがどうしてささいな感情上の問題であろうか。

ああ、新天地が眼前に広がっている。威力の時代が去り、道義の時代が来た。過去の各時代で錬磨され、ゆっくりと育まれてきた人道的精神が今まさに新文明の曙の光を人類の歴史に投射し始めている。新春が世界に巡り、万物の蘇生を促している。冷たい氷と雪で息が詰まっていたのが過ぎ去りし時代の形勢であったとするならば、穏やかな春の風と暖かい日差しで血管が力強く広がるのもまた現代の形勢である。天地の運勢が回復するに際し、世界の変潮に乗った我々には躊躇することは何もなく、忌みはばかることも何もない。

我々の固有なる自由権を保全し、生命の旺盛な営みを思う存分享受しよう。我々の豊富な独創力を發揮して春爛漫の天地に民族の真髄を突かせよう。我々はここに奮起する。良心は我々と共にあり、真理は我々と共に進む。男女老若を問わず、陰うつな古い巢から勢よく飛び出し、森羅万象と共に歓喜に溢れた復活を遂げよう。祖霊が我々を陰で助け、全世界の機運が我々を外から保護してくれている。したがって着手すれば直ちに成功につながる。ただ前途の光明に向かって突き進むのみである。

公約三章
一、今日の我々の行動は正義、人道、生存、栄光のための民族的欲求であるため、もっぱら自由の精神を發揮するのみであり、決して排他的感情で横道に逸れるはならない。
一、最後の一人まで、最後の一刻まで、民族の正当なる意思を快く表明せよ。
一、一切の行動は秩序を最も尊重し、我々の主張と態度をあくまでも公明正大にせよ。

朝鮮建國四二五二年三月一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甫 李弼柱 白龍成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權秉憲 羅龍煥 羅仁協 梁協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其兆

HUFS 비정상회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베트남의 이곳저곳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지로 선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년 대비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곳은 베트남이다. 특히 베트남 다낭은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이젠 해외에서도 여행 소비문화에서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가까운 거리△저렴한 물가△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많다는 장점으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낭 이외에도 호치민, 호이안 등 베트남의 다양한 도시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베트남 여행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베트남 출신인 우리학교 유학생 응우옌만(Nguyễn Mạnh) 학생을 만나봤다. 베트남엔 볼 것과 즐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다낭△호치민△호이안△달랏이 외국인들에게 유명한 관광지로서 손꼽히고 있죠.



▲다낭의 용다리 (출처: eMagazine)

먼저 다낭의 대표 관광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다낭 대성당은 유명 관광지로 꼽혀요. 다낭 대성당은 프랑스 식민시대에 세워진 카톨릭 성당으로 1923년 다낭에 거주하던 프랑스인들에 의해 건축된 대표적인 프랑스식 건축양식 성당이에요. 이곳에서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용다리도 다낭의 명소예요. 밤이 되면 용 모양의 다리에 밤에 조명이 켜지는데 이때 환상적인 용을 만날 수 있어요. 용다리에서는 불쇼도 진행되는데 불쇼는 매주 주말마다 약 15분 정도 진행해요. 꼭 밤에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웃음) 다낭에서는 비잉 짱 꾸온 텃 헤오를 먹어볼 수 있어요. 비잉 짱 꾸온 텃 헤오는 라이스 페이퍼에 얇게 썬 돼지고기와 각종 야채를 함께 싸먹는 요리로 우리가 아는 월남쌈의 한 종류예요.

다음은 호이안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다낭은 바다가 있는 도시라면 호이안은 베트남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 도시예요. 호이안은 투본 강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옛 마을이 고스란히 보존된 '올드타운'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풍홍의 집△틴끼의 집△북건관 등 마을 곳곳에 볼거리가 많아요. 투본 강에서는 바구니 배를 타고 호이안을 구경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이안에는 분짜가 유명해요. 올드타운에도 분짜맛집이 많이 있답니다.

다음은 호치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호치민엔 벤틀산이 유명해요. 시장에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기념품들이 많아요. 또한 전통적인 베트남 요리를 즐기기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 중 한 곳이에요. 튀긴 생선이나 아이스티 한잔을 마시며 현지 특산 요리를 제공해주는 음식점도 많아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쇼핑할 때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면 흥정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달랏의 관광지에 대해 알아보죠? 랑비안산은 달랏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보존지역으로 등재됐어요. 이곳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트레킹을 하거나 지프차를 타고 관광할 수 있어요. 이곳엔 할아버지산, 할머니산을 뜻하는 누이 옹(Nui Ong)과 누이 바(Nui Ba)라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산이 랑비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곳에 오면 고원의 장엄한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가 어우러진 베트남으로 놀러오세요. 베트남에서만 만나요!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기록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우리학교의 외국어 원어 연극사(演劇史) - ①세계의 문화를 원어로 재창조하다



▲개교 3주년 기념 영어 연극

語學의殿堂 두 돌 맞다

開學記念 英語劇 盛大裡에 閉幕
香氣는 英語劇의 발 이복!
지난 4월 20일 우리 학교 3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영어 연극 공연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우리학교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학생들의 열정과 헌신이 돋보였다. 공연은 1956년 4월 20일, 우리학교 개교 2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는 우리학교 최초의 공식 원어 연극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행사는 우리학교 영어회화학회인 E.S.S(The English Speaking Society)의 주도로 마련됐다. 공연 작품은 크리스토퍼 프라이어(Christopher Fry)의 《The Lady's Not For Burning》이었는데 이 작품을 국내 무대에서 선보인 것은 최초였다.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한 신설 학교의 원어 연극 공연에서 높은 수준의 작품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공연이 끝나자 뜻밖에도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작품의 수준에 대해서도 의외의 호평이 이어졌다. 영어 연극이 전공인 오화섭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단히 훌륭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영어 연극을 보여준데 감사하다"며 극찬했다. 한 외국인 관람자는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며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외대 최초 원어 연극 개최 기사

우리학교 학생들은 전 세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며 쌓아온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어를 활용한 다양한 학생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기원하는 우리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모의UN총회(1958)와 세계민속 예술제전(1971) 외에도 우리학교는 외국어 작문·회화경시 대회, 글로벌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체육 행사 등이 활발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개교 직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활동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진행하는 외국어 원어 연극이다. 1956년 4월 20일, 우리학교 개교 2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는 우리학교 최초의 공식 원어 연극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행사는 우리학교 영어회화학회인 E.S.S(The English Speaking Society)의 주도로 마련됐다. 공연 작품은 크리스토퍼 프라이어(Christopher Fry)의 《The Lady's Not For Burning》이었는데 이 작품을 국내 무대에서 선보인 것은 최초였다.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한 신설 학교의 원어 연극 공연에서 높은 수준의 작품성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공연이 끝나자 뜻밖에도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작품의 수준에 대해서도 의외의 호평이 이어졌다. 영어 연극이 전공인 오화섭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단히 훌륭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영어 연극을 보여준데 감사하다"며 극찬했다. 한 외국인 관람자는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며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학교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줬고 이후 학교를 대표하는 전통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성공은 물론 학생들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연습의 결과였다. 또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우리학교의 집념과 학풍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했다. 개교 직후부터 정부는 우리학교에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감안해 우수한 외국인 교수 임용을 적극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영국 런던대학의 저명한 영문학자 레이너(George Rainer) 교수가 초빙됐다. 햄릿의 대사를 줄줄 외을 정도의 연극 애호가이기도 한 레이너 교수는 1957년 4월 20일 개교 3주년을 맞아 《곰돌이 푸(Winnie the Pooh)》의 작가로 잘 알려진 앨런 밀른(Alan A. Milne)의 작품 《Mr. Pim Passes By》의 감독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선보였다. 영어 연극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특유의 열정을 지닌 영문학 교수의 지도로 탄생한 원어 연극은 더욱 큰 화제를 몰고 왔다. 미국 대사관, 영국 공사관 등 주요기관에서 찾아온 외국 귀빈 200여 명이 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 연극을 관람했다. 작품은 성황리에 상연됐고 호평이 이어졌다. 한국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던 유엔 산하 경제조정관실의 책임자인 윌리엄 와르네(William E. Worne)는 노신식 영어연극회 회장에게 "학생 배우들이 영어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자신의 대학 시절을 상기시켰다"며 극찬하는 서신을 보내올 정도였다.

②편에서 계속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기숙사에서 발생한 폭행,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1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외국 교환학생 신분의 대학원생이며 현재 경찰에 연행돼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사건과 관련된 사

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경위와 진행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교환학생의 기숙사 경비원 폭행 사건

이번 달 1일 저녁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동 1층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인 대학원생 H 씨가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폭행 후에 같은 건물 8층으로 올라가 휴게실에 있는 의자로 복도와 창문 등을 파손했다. 사건 직후 주변 학생들의 신고로 가해자는 경찰에 연행됐다. 폭행으로 다친 기숙사 경비원은 병원으로 이송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기숙사 B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오늘 있었던 기숙사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앞으로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에게 호신용 장비를 지급하고 기숙사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민(통번역·마인어 15) 씨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학교 기숙사에서 이런 끔찍한 폭행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 경비원 및 사감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도 서로 배려하고 기본적인 규칙은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안전에 대한 학교와 학생 모두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기숙사 경비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교 측에서 전 교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학교 이클래스(E-Class)에 있는 ‘인권 생명등(폭력 예방 통합교육) 교육’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의거해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를 위해 개설된 비정규 과목임이 밝혀졌다. 학교는 추후 이클래스에 교육용 자료를 등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숙사 관계자 인터뷰

이번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의 학사운영팀과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이번에 발생한 기숙사 내 폭행 사건의 경위는?

A1: 우리 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환학생 대학원생 H 씨가 저녁 9시 22분경 맨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갑자기 경비실 창문을 통해서 경비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폭행을 저질렀다. 이어서 그는 조그만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경비실에 들어가 약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경비원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은 코 뼈가 부러지고 눈 주변이 찢어지는 등 연면에 부상을 입었다.

Q2: 폭행이후 가해자가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상황은 어떠했는가?

A2: H 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후 곧바로 기숙사 B동 8층으로 올라가 8층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보던 남학생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곧이어 그는 의자를 이용해 7-8차례 창문을 내리쳐 깬 이후 의자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때 깨진 창문의 유리 파편들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다친 학생들은 없었다. 현재 가해자 H 씨는 용인동부 경찰서로 연행된 상태다. H 씨는 경찰들이 출동한 상황에도 전자레인지로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러나 경찰 연행 도중 흉부에 통증을 호소했고 현재 분당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용인동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Q3: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폭행 당시 이를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

A3: 우리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K학생이 중간에 폭행을 말려 폭행당한 경비원이 그나마 덜 다쳤던 것 같다. 안타까운 점은 이 학생 또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먹으로 목을 가격 당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 이를 저지했다는 점은 크게 칭찬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있던 직후 기숙사 B동 8층 휴게실 모습 (출처 : 에브리타임)



▲현재 수습중인 기숙사 B동 8층 휴게실의 모습



▲기숙사 B동 경비실의 현재모습

◆경찰 관계자 인터뷰

우리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경비원 폭행 사건을 조사한 용인동부 경찰서 형사과의 경찰관 L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L 씨는 학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Q1. 현재 사건 조사 상황은 어떠한가?

A1. 이번 달 1일 저녁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H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해자는 전자레인지로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저항했다. 결국 경찰관 두 명에 의해 제압당한 가해자는 용인동부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흉부에 통증을 호소했다. 그래서 결국 치료 이후 재조사하기로 했다.

Q2. 조사 결과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A2. 우선 가해자 H 씨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다.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해 통역을 거쳐 얘기하고 있다. 그에게 범행동기를 물어 봤을 때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역시 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현재 치료중이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Q3. 외국인 신분인 가해자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3.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속지주의*에 근거해 이뤄진다. 따라서 현재 가해자인 H 씨가 국내에 거주 중이므로 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우리나라의 형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겐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 항목을 적용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속지주의: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하는 주의

◆피해자 심경 인터뷰

사건 발생 직후, 지난 3일 경비원 D 씨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심경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A1. 이번 폭행 사건은 말 그대로 ‘묻지 마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가해자인 H 학생이 기숙사 카드 키가 없으니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걸어 오며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창문을 넘어 갑자기 주먹이 날아 들어왔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폭행당했다. 이어서 그는 경비실 내부로 들어와 지속적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Q2. 현재 부상 정도와 앞으로 치료 등 추후 계획은 어떠한가?

A2. 가해자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인해 눈 주위에 피가 나고 코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집으로 돌아와 통원치료 중이다. 현재 회복 중에 있으나 이번 달 13일에 코뼈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Q3. 사건에 대한 심경은 어떠한가?

A3. 우선 너무 당황스러웠다. 평소 아침저녁으로 기숙사의 여러 학생들과 인사나 안부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곤 한다.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학생 대 경비원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학생이 흥분하며 폭행을 했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무차별적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숙사 경비원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H씨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숙사 퇴거 및 퇴학 조치 예정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 안전을 위한 학교와 학생 모두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촉구된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모든 것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대해 제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하 여야 4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원들은 ‘좌파독재타도 헌법수호’를 대표 구호로 내세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으나 저지에 실패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여·야 몸싸움은 일단락됐으나 이번

달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집단 식발투쟁을 시작으로 본격 장외 시위를 예고했다. 반면 여야 4당은 같은 날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협의·조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언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패스트트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패스트트랙의 의미와 지정 과정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라고도 불린다. 발의된 법안을 최대 330일 뒤엔 반드시 표결함으로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 법안 무기한 표류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는 2015년 5월에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은 이를 신속하게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다. 이는 재적 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3/5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을 경우 소관 상임위는 이에 대한 심사를 지정 일로부터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이 기간 내 소관 상임위 심의와 의결이 끝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의결***된다. 본회의에선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최장 330일 이내에 최종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소관 상임위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도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 ‘안건조정위원회’와 국회의장의 동의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처리될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감독하고,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들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 부의: 토의에 부침

◆이전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고 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1호 안건이다. 구체적으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지 못했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주된 목표는 △사건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 수립 △안전사회 건설 및 확립이다.

2016년 12월 23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가 여의치 않자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해 이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는 환노위원 16명 중 야당 측 위원이 10명으로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을 넘었기에 가능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16명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통과

됐다. 같은 해 6월 23일 환노위(180일),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의 부의 기간(60일)까지 채우면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과 그 내용은?

이번 패스트트랙엔 △선거제 개편안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경수사권 조정안 등 총 4개 법안이 지정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가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해당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 순위대로 선출된다. 따라서 득표율 1위를 잇는 지역구가 유의미한 투표수를 얻어도 선출되지 못해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와 투표 방식은 같으나 의석 배분 방식에 차이가 있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다만 여·야 이해관계 합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을 전체 국회의원 수에 적용해 선출된 수가 지역구의 수보다 크면 그만큼 비례대표에서 추가 선출하고 적으면 비례대표에선 한 명도 선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당 의석 감소분을 소수당이 나눠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수 정당에겐 비교적 유리하나 거대 정당에겐 불리할 수 있는 제도다. 동시에 소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보다 민주적인 제도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유리한 거대 정당의 경우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개혁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정당 등 범여권 세력이 과반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야당 위치를 유지해도 범여권 세력이 밀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야 4당 합의안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지정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 재정신청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위 두 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의 인사권은 독립한 수사처장에게 있다. 또, 수사대상을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반면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며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가진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나 대표)는 “공수처 설치에는 3권 분립 체제를 침해하며 대통령 권한·검사를 장악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기를 들었다.

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기 전엔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의 일차적인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한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추가된다. 피의자 신문조서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 신문 과정이 정리된 문서이며 경찰 조서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경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총괄적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협상 테이블에 놓인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지정이 확정됐으나 아직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달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각종 노동 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심의를 시급함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도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속에 합의를 이루는 민의의 장”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논의조차 거부하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함께 개혁안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당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정치는 민의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속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대표는 “어제 박대출 의원이 먼저 식발투쟁을 시작했으며 이는 개인 차원의 항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선거제·공수처·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촉구한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에 대해서 “여야 4당이 파국으로 몰고 가고 이제 와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테이블 참석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타임은 우리학교 중앙 영어 시사 동아리다. 해외의 다양한 시사 칼럼과 기사를 해석해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건설적인 조언을 듣는다. 영어와 시사 모두 접할 수 있다는 활동은 타임만의 장점이다. 타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손민필(서양어·독일어 17) 서울캠퍼스 타임 회장을 만나봤다.

Q1. 타임에 가입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우선 대학교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시사 상식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타임이 시사와 영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동아리라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살아가는데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임에서는 기사와 칼럼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세계 시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해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Q2. 타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동아리 활동은 주로 강의로 구성됩니다. 강의에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타 대학교 학생들과 서로 강의를 선보이는 ‘교환 강의’도 있습니다. 지난번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진행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고려대학교와 교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신입 부원들이 기존 부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스타터’도 있습니다. 이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해석한 영어지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피티를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는 타임 활동들은 대학 생활 중에 수업이 만날 과제와 발표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3. 활동하는 동안 들었던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가 있나요?

홈커밍데이 때, 현재 우리학교 EICC학과 외래 교수님으로 부임하고 계신 김태훈 선배님이 해주신 강의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선배님께서 타임에서 직접 활동하셨기 때문에 부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를 직접 가르쳐 주셔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Q4. 이번 해 주요 타임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션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행사였던 만큼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이 오셨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활동으로는 교환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와 교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사업 확대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엔 동아리 방 인테리어 개선을 위해 가구를 교체했고 프린터를 설치했습니다. 동시에 간식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Q5. 동아리 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부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동아리에서까지 강의를 듣는 게 많이 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동아리에

들어왔지만,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출석해주는 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끔 부원들에게 출석에 관해 잔소리를 하지만 웃으면서 이해해주려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사실 타임은 공부를 위해 모인 동아리입니다. 그러나 공부뿐만 아니라 엔터 같은 활동을 통해 친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나현기자 98nahyuuuny@hufs.ac.kr

이 시대의 블루오션, 중앙아시아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인 스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3월에 이뤄진 신(新) 남방외교의 연장선에 있는 외교 전략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한반도 주변의 4강 외교에만 집중했던 그간의 행보에서 나아가 북방 외교의 실질적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중앙아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역이며 이후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조양현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초빙교수를 만나 알아봤다.

조양현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초빙교수

Q1. 중앙아시아는 어떤 지역인가요? 중앙아시아에 대한 교수님의 전반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 중앙부의 광대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몽골, 중국 일부 지역, 아제르바이잔, 터키까지 묶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전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혈연적, 언어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연계를 맺기에 용이한 국가들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반을 다진 이후에는 상부상조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블루오션'입니다. 반대로 이미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진출해서 경제적으로 포화 상태인 국가들은 레드오션으로 그런 국가들은 우리가 진출해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진출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지속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Q2.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관계는 어떤가요?

이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들 중 주로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교류를 시작했고 가스플랜트 산업단지도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이 '신 북방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 이외에도 관심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에 방문한 주요 3개국 외 중앙아시아의 다른 소국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협력과 사업 분야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이 다변화될수록 한 사업이 끊어지는 경제적 위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한데 반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업 다양화와 경제적 위험 부담 완화에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면적이 중요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3200만에 육박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주목하는 국가입니다. 많은 나라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러시아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2015년부터 관세동맹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 나라는 정치·외교적으로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죠.

Q3.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 방문한 것이 '신 북방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지만 우리의 북방 진출을 위해 북한에만 기댈 수 없는 노릇이지요. 경제적으로 확대해 나갈 만한 동북아시아 국가들로는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를 포함한 극동지방, 몽골 등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영향권을 더 넓혀본다면 중앙아시아가 있고 마찬가지로 터키 또한 북쪽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방 정책'이란 단순히 정치·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영토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경제적으로 협력을 맺어준 국가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FTA*를 맺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를 맺게 되면 그 나라의 기업과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불기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북방과 FTA를 맺게 된다면 현재 △미국, △EU, △터키에 이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영토가 넓어집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초기 단계에는 경제적 인프라를 설치하며 영토를 확장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정치·외교적으로 보완과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죠.

*FTA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Q4. 이번 순방을 통해 3개국과 어떤 경제적 협력체가 결성됐나요?

보건의료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렇다 할 응급의료 시스템도 없고 의사들의 손기술 등도 우리나라의 수준을 따라오기 힘들죠.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의료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협력체가 결성됐습니다. 더불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설립됐던 세종학당도 투르크메니스탄에 신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종학당은 우리말과 문화를 더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섬유 산업 등 중앙아시아와 우리가 서로 협력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협력체가 활발히 구상되고 있습니다.

Q5.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갖는 관심의 정도는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과 똑같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 간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이 기업의 몫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에 상주할 수 없고 대사관의 인력도 한정적이라 정부가 솔선해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기업 간 투자나 수출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아직 익숙지 않은 나라더라도 용기 있게 진출해 거래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계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중앙아시아 지역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언어 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강점은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교류를 하기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의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매니저먼트 과정에서 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어만 구사할 줄 알죠. 영어라는 언어를 바탕으로 교류를 하면 현지어를 구사할 때보다는 비효율적이고 가까워지기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경우 과거에는 CIS의 영향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젊은 층으로 경제 활동 주체가 교체될수록 각각의 국가의 모국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그 나라의 말을 구사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부족하게나마 간단한 인사말을 익혀 인사하는 것이 성공적 비즈니스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가 통하면 낯선 문화까지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Q6.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관계에 있어 보다 비전 있는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산업 중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ICT*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적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돼 있어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ICT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CT는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 또한 ICT의 부재에서 발현된 현상일 수 있습니다. ICT는 어찌보면 기계 언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기계들이 산업 주체로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ICT는 여러 기업들에게 주목받는 사업입니다. 중앙아시아도 ICT 기술이 필요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들의 관계에 ICT는 소중한 분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ICT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이 새로운 화두가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 이는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의 연결도 가능하게 한다.

이대민 기자 98bdaminc@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19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9학년도 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9.4.22.(월) ~ 5.3.(금)	2019.5.20.(월) ~ 5.31.(금)
고사장 발표	5.8.(수) 15:00	6.5.(수) 15:00
면접전형	5.11.(토) 10:00 예정	6.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5.22.(수) 14:00	6.19.(수) 14:00
등록 예치금 납부	5.27.(월) ~ 5.31.(금)	6.24.(월) ~ 6.2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연구계획서 1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학력조회동의서 부(원본)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최소 3학기 졸업 가능
-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출발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중점성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교수관 104호)



바쁘고 힘들어도 꿈은 계속되니까

지난 학기, 등갓길에 한 현수막을 보게 됐다. 98기 학보 수습기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였다. 말귀를 알아들을 그 무렵부터 이빨을 따라 자주 뉴스를 보곤 했는데 TV에 나오는 기자가 나에게 참 멋있어 보였다. 뒷 모르는 시절부터 그렇게 나의 꿈은 변함없이 언론인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글 쓰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도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런 나에게 '기자'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설레고 멋진 꿈이었다. 학교의 언론인으로 일한다는 것이 참 멋지고 보람차게 느껴져 지원하고 싶었지만, 선풍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 수업도 최대한 효율을 채워 듣고 동아리에 대외활동에 열심이 없었다. 따로 공부할 시간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내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 고향에 큰일이 생겼고 나는 정신없이 귀향하게 됐다. 고향에서 바쁜 일들을 처리하고 나자 수습기자 지원 시간이 지나버렸다. 급하게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면접을 보고 시험을 쳤다.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 '떨어졌구나, 여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보에 합격했고 처음 학보 사람들과 만나게 됐다. 어색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 됐다.

기자를 하면서 평소 관심 없이 지나갔을 학교의 소식들도 관심 있게 보게 됐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보며 나에게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았다. 매주 목요일에는 밤을 새우며 기사를 쓰고 수차례 고치면서 기사 하나에도 많은 이들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여러 명에게 전화와 문자를 돌리며 세상의 쓴맛도 보게 됐다. 처음 명함이라는 것을 받았던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다. 내가 쓴 기사를 지면으로 맞이했던 순간도 생생하고 갑자기 기사가 얹어져 새 주제를 찾고 취재해서 써낸 기사도 아직도 참 소중한 것이다. 내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꿈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기자라는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그만큼 아픔과 고통도 수반되는 직업임을 나는 외대학보에서 몸소 알게 됐다.

학보 기사를 하지 않았다면 나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 생각해봤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 죽겠다고 너스레를 떨곤 하나 학보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여유롭고 잠도 많이 잤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슴 뛰는 순간들과 재미는 없었을 것이다.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학보 기자는 내가 꿈을 미리 체험해보게 해줬다. 내가 가려는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인지, 후회는 없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나는 기자 생활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다. 나는 글을 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다민 기자

[인권으로 지은 밥, 연대로 빛은 술] 심야인권식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자'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외장지는 않는다. 아마 일상생활 중 이를 때 순간 인지하며 살아가기엔 우리 삶은 상당히 바쁘기 때문이다.

인권은 상당히 반대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부분으로서 그 개성을 인정받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저자인 류은숙 작가는 인권운동가이다. 그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을 거쳐 인권연구소 '창'에서 활동해왔다. 인권운동에는 △공부△글쓰기△모임 △창설△용기 있는 행동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지만, 그녀는 직접 몸을 움직이는 '몸 노동'이 최고라는 신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심야인권식당'을 운영한다.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술 한잔 기울일 틈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선물한다. 그렇게 부대끼며 쌓인 추억과 시간이 바로 인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녀는 얘기한다.

책은 심야인권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전개된다. 저자는 '심야인권식당'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스한 밥과 술을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그녀의 정성 어린 한 끼를 먹으며 살아야 할 겪은 이야기로부터 조심스레 풀어놓는다. △혐오와 차별에 지친 외국인 노동자△학생들의 인권을 외치는 학생운동가△법에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권변호사 등 여러 이야기가 등장한다. 누군가는 갑자기 사라진 직업을 되찾기 위해 혹독한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 속, 아이를 키우며 고독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당한 처우 속에 하루를 보내는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며 '현명한 제3자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세상의 모든 상황에는 당사자가 존재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은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고군분투한다. 그렇지만 상황에 연관되지 않은 제3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매커니즘은 우리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업자△외국인 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과 기독교인 사이에서 우리는 현명한 제3자 역할을 해야 한다. 팔짱 끼고 남의 일이라며 논평하기 보단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아는 제3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인권'을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책을 읽고 지혜로운 제3자가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모아나] 진정한 당신의 꿈을 위해

영화 '모아나'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 말한다. 모두누이 섬 족장의 딸 모아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준 전설을 듣고 넓은 바다를 누비겠다는 꿈을 품는다. 그러나 모두누이 섬엔 폭풍으로부터 부족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초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다. 게다가 모아나는 족장을 물려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모아나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품었던 꿈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그러던 중 평화롭던 모두누이 섬에 저주가 내린다. 저주를 풀기 위해선 자연의 신인 '테 피티'의 심장을 훔친 반신반인 '마우이'를 찾아 그 심장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법뿐이다.

모아나는 섬을 구하기 위해 사명감을 안고 바다로 나간다. 마우이만 만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지만, 마우이 역시 문제를 피하기 바쁘다. 모아나는 우여곡절 끝에 마우이를 설득했지만 테 피티의 심장을 돌려놓기 위해선 '테 카'라는 악마를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아나는 테 카를 물리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상심한 모아나는 포기하려 하지만 할머니의 도움으로 자신의 부족이 바다를 누비는 항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아나는 다시 한번 테 카와 맞서고 마침내 그를 물리칠 기회가 오지만 잡지 않는다. 사실 테 카는 심장을 잃어버린 테 피티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심장을 되찾은 테 카는 다시 테 피티의 모습으로 돌아

가고 비로소 모두누이 섬도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실에 수긍하고 꿈을 체념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다.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극 중 모아나의 아빠가 항해를 꿈꾸는 모아나에게 던진 말이다. 언제고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듯했다. 영화는 그럼에도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듯하던 모아나는 결국 항해자라는 정체성을 찾았다. 테 피티의 심장을 노리는 악마인 줄만 알았던 테 카 역시 자연의 신이라는 본 모습을 되찾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는 모험을 한 덕분이다.

차츰 현실의 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지금, 영화 모아나가 내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영화는 현실과의 타협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에 의문을 던진다. 또 나도 잊고 있던 것들 '나'를 마주해야 한다고 전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느낀다. 내겐 실패가 두려워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날들이 많다. 영화 내내 터무니없다며 미뤄왔던 꿈이 안타깝고 아쉬웠다. "간절히 그리면 마침내 그 꿈을 닮게 된다"는 말이 있다. 어떤 꿈일지라도 처음의 그 간절함으로 끝내 이루는 순간이 깃들길 바란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1030호 학보를 읽고

안정민(아시아·마인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지난 1030호의 김지수, 안효빈 기자의 '총학생회의 부재' 기사를 읽으며 지난 1년간의 학교생활을 떠올려보게 됐다. 신입생이었던 지난해, 총학생회(이하 총학) 체제였던 우리 학교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총학이 성사되기 이전 서울캠퍼스가 3년간 비대위 체제였다는 것과 정기총회의 참여 인원 일정 수를 넘어야 성사된다는 말을 듣고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러나 총학과 비대위의 차이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총학과 비대위 구조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학생 자치 관련 참여율 하락이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의한 현상이자,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 또한 겪고 있는 문제임을 알게 돼 상당히 유익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다시 비대위 체제로 돌아왔다. 앞으로 학생사회에 관심을 두고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군원경강화학과 이주제의 부재 문제를 다룬 기사 또한 기억에 남는다. 필자는 군대에 갈 의무가 없지만, 최근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군대로 인해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학업을 강제로 쉬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함을 느껴왔다. 현재 다른 학교가 군이러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학교는 케이무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사는 군이러닝 제도

와 케이무크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해줬다. 또한 해당 기사는 군대를 앞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도 국민총소득, 장애인 날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기사도 또한 인상 깊게 읽었다. 특히 이번 해 7월부터 개편된 장애인에 따라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의의를 돌아볼 수 있었다.

외대학보가 교내언론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문제들△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문제들△학생의 신분으로는 쉽게 지적이 어려운 문제들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공론장을 형성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번 호에서 다룬 △총학 및 비대위 관련 문제△군이러닝 문제△해오름식 문제가 바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30호는 학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내언론으로서 학보가 지난 긍정적 영향력이 앞으로도 잘 유지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길 기대한다.

1030호 학보를 읽고

김정현(국제지역·아프리카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30호는 중요한 문제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군 복무 중 대학 원경 강좌 부재를 다룬 기사에서 '군 이러닝'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제시된 지표들을 통해 군 이러닝 강좌를 대신 실행하고 있는 케이무크 시스템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타 학교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케이무크가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대한 지표와 군 이러닝과 케이무크의 차이를 비교한 표가 첨부됐다면 더 유익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성비로 따져보면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재적학생 수의 반절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이 현재지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학교 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글로벌캠퍼스의 새 학기 행사 중 하나인 해오름식에 대한 기사는 해오름식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타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오름식의 문제와 개선,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호에 이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리는 역할을 학생언론으로서 학보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서울캠퍼스의 비대위의 인터뷰를 비

롯해 총학의 부재와 그 이유를 파헤친 기사는 구성이 좋았다. 타 학교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최근 대학 내 학생 자치가 부진한 실정을 다룬 후의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학교로 적절히 범위를 좁혔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총학의 필요성을 높은 비율로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참여△관심△인식은 현저히 낮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에서 분석한 답을 들을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장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관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적절한 인터뷰의 선정이었다.

기획보도 외에도 장애인 날 기사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4월 20일의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GNI 3만불 돌파 관련 기사는 날카로운 인터뷰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학보를 읽으며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학생 자치의 중요성△해오름식 등 생각해봐야 할 사안들이지만 큰 관심이 없었던 교내 문제들에 대해 알아가고 고민해볼 수 있었다.



국·부장 고정칼럼

취미가 가져다주는 일상생활 속 즐거움

지난달 24일, 마블시리즈의 팬이라면 작년부터 기다렸을 마블시리즈의 마칩 표인 어벤저스: 엔드게임 이 개봉했다. 개봉 13일 째에는 누적 관객 수 1100만을 돌파하며 마블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엔드게임은 지금까지 상영된 마블의 21편 영화들에서 나온 스칼라 등 스카전 인물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대장정의 마무리이자 팬서비스 차원의 영화이다. 그래서인지 앞서 개봉한 영화를 미리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엔드게임의 명장면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 역시 문화생활 수준 정도에서 마블 시리즈 몇 편만 봤기 때문에 내용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화의 CG, 영상미 등 예술적인 면모에 반하게 됐다. 흔히 마블식 유머 라고 불리는 특유의 웃음 포인트도, 조금은 뻘뻘하지만 가족 영화답게 우주 최고의 악당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켜내는 스토리도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엔드게임으로 원조 마블이 종지부를 찍자마자 나는 지난 21편의 마블 시리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일명 '정주행' 중이다. 최종 결말을 아는 상태라 순서를 거스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마블 시리즈 보기는 최근 나의 새로운 취미로 정착했다. 정신없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숨 돌릴 틈 없는 하루가 반복되듯 톰툰이 마블 시리즈를 볼 때 유일하게 순수한 행복을

느낀다. 때때로 나의 취미는 바뀌고 있다. 20살이 되던 해, 망가진 체력을 되돌리기 위해 도전해본 복싱 배우기는 여전히 즐기고 있는 운동이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예전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볼래" 했던 연극과 뮤지컬을 보느라 한 달 용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사진 촬영에 푹 빠져 내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보정하느라 하루가 가는 줄도 몰랐다. 이번 해는 독서와 더불어 마블 시리즈 보기가 취미가 됐다. 이렇게 어떤 취미에 빠지고, 몰입하는 시간이 '당신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니까?' 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줄 것이라 믿는다. 사실 불가능함을 알지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래 라는 어린이 같은 마음 기증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 탐색하고 정답을 찾도록 이끌었다. 마냥 즐거워 보였던 일을 직접 해 보니 생각보다 벅찰 때도 있고, 의무감에 이끌려 했던 일이 취미가 되어 일상 생활 속 즐거움이 될 때도 있다. 반복되는 하루들로 점점 기대감을 상실하게 되는 생활 속, 본인만의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떤까? 다채롭고 새로운 즐거움 이회색빛이던 일상생활에 빛을 비추줄 것이다.

조유진 부장 96yujin@hufs.ac.kr



여행길에서 맞이하는 봄에는 꽃향기를 맡아보자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여행과 같다.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경치를 보고 색다른 경험을 하며 즐겁게 보낼 때도 있지만, 종종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무리한 일정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날씨가 엉망이어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한다.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같이 여행을 하는 동행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되었을 때다. 다툼의 대상은 친구나 가족 뿐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의 한 가운데를 들여다 보면, 절망과 원망, 후회의 어둠 속에서 괴로움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의 한 가운데에서 어마로 화해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를 잠시 잊혀두고 자신 안으로 더 들어가서 온전히 혼자가 될 기회를 가져보자. 이 시간을 가져와 지혜의 씨앗이 자라날 기회가 온다. 온전히 혼자가 될 때, 자신의 깊은 곳에서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응시하면 역설적으로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봄으로써 타인의 깊은 곳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선물의 시간을 맞을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자신 안의 서로 다른 여러 자아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여러 자아들을 바라볼 때, 그 여러 자아들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선만을 느껴보라. 그리고 고요하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해보라. 잠시 그렇게 있어 보라. 그리고 그 고요해진 마음으로 다시 밖의 파란 하늘과 길가에 새롭게 올라오는 꽃들과 나무들의 잎을 보라. 지구별 사람들의 여러 일에도 초연해지는 시선을 느껴보라.

이 과정이 성공했을 때,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다툼의 한 가운데에서 다시 화해의 출발점이 열리게 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그 씨앗의 싹을 틔우고, 그것을 잘 자라나게 하고, 때가 되어 또 꽃도 피우게 하고, 다시 새로운 지혜의 씨앗을 남길 수 있도록 가꾸고 보살피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전체가 조화로운 삶이 되도록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화로운 삶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각자 몫이다. 각자 지혜의 씨앗이 자라나기에 알맞은 계절이 다르기에, 그리고 그 씨앗이 움텄을 때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하기에, 조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가는 개인차가 크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자(莊子)』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에 따르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몸 안에 있는 간과 쓸개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별과 달만큼이나 멀게 느껴지고, 같다고 생각하면, 만물은 하나다. 우리는 이 지구별 한국이라는 세상에 여행을 와서 여러 다른 여행객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잘 어울리는 여행객을 만나면 즐겁기도 하고, 어울리기 어려운 여행객을 만나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행객들 사이의 다툼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그것은 괴로움 그 자체다. 괴롭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여행 온 것이어야 될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괴로움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우리 지구별에서의 삶이란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다툼이 우리 삶의 여행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 나는 삶이라는 각자의 여행이 아프기도 하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동시에 재미있고 또 즐거운 이야기이길 바란다. 우리는 각자가 이 지구별 여행에서 써나갈 서로의 이야기가 비록 아플 때가 있더라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어렵고 괴로운 시간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깊은 곳을 응시하고 그래서 또 타인의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누군가와 다툼 때 그 다툼에 빠지기만 하지 말고, 그 다툼으로 인한 괴로움에 고통스러워 하지만 말고, 그 순간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으로 여행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자. 그리고 그 물음은 한 순간에 답이 나올 수 없다. 내면에서 답이 울려나올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물음에 답이 나올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설익은 밥처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만 또 누가 아는가? 설익은 밥이, 선부른 답이, 명답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주저하지도 말자. 봄에 핀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꿀강의’ 를 소개드립니다

우리학교 꿀강의

- 강의명:** 육아와 아동심리
- 교수명:** 이정현
- 강의 소개:** 영유아 발달에 대한 학습 및 여러 가지 주제 토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상적인 부모상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한다.
- 강의 진행 방식:** 교수의 PPT 강의와 조별토론이 주를 이룬다. 2시간 중 한 시간은 이론수업, 나머지 한 시간은 동영상 시청이나 조별토론으로 진행된다. 출석 및 수업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의 점수가 각각 점수에 반영되고 이를 합산해 성적을 산출한다.
- 강의명:** 인생의 교훈을 배워가는 강의이다. 아동 발달 위주로 각 학자의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강의이다. 아이들의 행동방식, 발달 과업에 대해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다. 교수님 강의력이 좋으시고 내용도 유익하다. 교수님 본인 경험을 들어가면서 수업을 해주셔서 이해가 쉽다. 개념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고 유머러스하게 해주셔서 수업을 듣는 게 너무 재밌다.

십자말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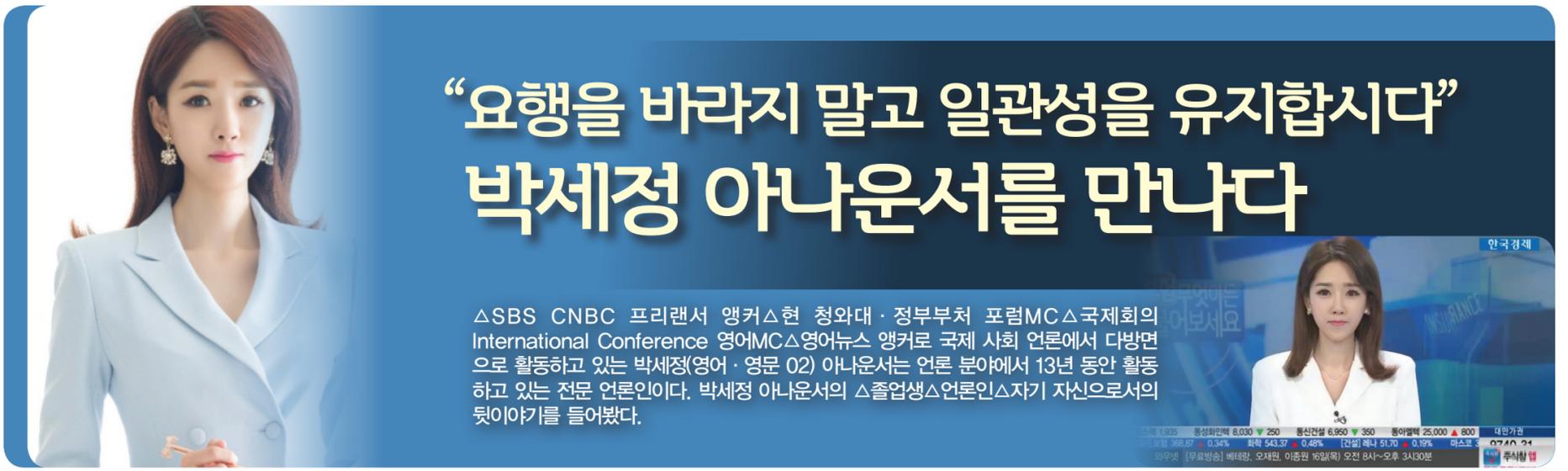
	1				2				
1									
					2				
								3	
4		4			3				
								5	
					5				

- 가로**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22일에 ○○○○을 방문해 현지에서 독립운동가 계몽우·황운정 의사의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9면 참조)
 - 지난달 10일에 글로벌캠퍼스에서 ○○○가 열렸다. (5면 참조)
 - 지난달 17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제10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는 ○○○ 장학금이라고도 불린다. (2면 참조)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을 방문해 각종 MOU 체결했다. (9면 참조)
 - 꿀강의로 '육아와 아동심리'가 소개됐다. (11면 참조)
- 세로**
- 우리학교에 사범○○○설립 협정이 체결됐다. (1면 참조)
 - △SBS CNBC 프리랜서 앵커스전 청와대 전문 MC △영어뉴스 앵커로 국제 사회 언론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운서는 언론 분야에서 1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언론 전문인이다. (12면 참조)
 - 최근 '총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신여대와 이화여대는 이미 시행중이다. (7면 참조)
 -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에 터키·○○○○○ 어학과가 있어 이번 해 3월 1일에 터키문화원이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2층에 개설했다. (2면 참조)
 - '4.19 혁명 59주년 기념식 및 ○○○수여식이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2면 참조)
-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6mounta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합시다” 박세정 아나운서를 만나다

△SBS CNBC 프리랜서 앵커△현 청와대·정부부처 포럼MC△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영어MC△영어뉴스 앵커로 국제 사회 언론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정(영어·영문 02) 아나운서는 언론 분야에서 1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언론인이다. 박세정 아나운서의 △졸업생△언론인△자기 자신으로서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학교 졸업생으로서

Q1.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학창 시절은 오로지 공부와 록 밴드 활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학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처음엔 해외파친구들이 많은 우리학교 영어과에서 선두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후 실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삶의 즐거움 을 느끼며 행복하게 공부했습니다.

Q2.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신문 기자·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습니다. 저도 글쓰기와 말하기에 자신이 있었고, 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기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9·11 테러를 보도하는 CNN 뉴스를 보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담담하게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CNN의 앵커의 모습을 보고 뉴스 앵커는 큰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쪽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Q3. 우리학교 졸업생으로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학교 졸업생에 대한 기대였어요. 기본적으로 우리학교 졸업생은 언어를 잘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있죠. 물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당시 우리학교는 '한국외국어고등학교' 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내실 있게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도움이 많이 됐죠.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우리학교 졸업생은 "외국어만 잘 한다"는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우리말 실력을 기르기 위해 노

력했고 결국 KBS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회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Q4. 16년도에는 세계 민속 문화 축전을, 17년도에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행사 진행을 맡았는데 그 당시 후배를 보는 느낌은 어땠나요?

무척 감격스러웠죠. 19살 때부터 꿈꾸던 '아나운서' 라는 직책을 달고 다시 학교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함' 을 느꼈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정말 귀여웠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후배들을 도와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5. 우리학교 학생들 중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죽도록' 노력해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 사회에서 만난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산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외대인들만의 피' 라고 생각해요.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공채도 거치지 않고 자신을 아나운서라고 사칭하는 사람들. 전문 진행자로서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외국어 실력만 갖추고 MC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우리 후배들은 정도를 건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나운서로서

Q6. 공채 아나운서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국 케이블TV 아나운서 공채에서 800: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던 그때, 제 자기소개가 생각납니다. 저는 당시 "서태지를 좋아한 지 15년, 한 남친친구를 사귀지 5년, 아나운서를 꿈꾸지 10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어요. "나는 무언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사람이다. 60대까지 언론계에 남을 테니 두고 보시라."고 말했어요. 더불어 저는 오랫동안 꾸준히 신문스캐럽을 해 시사

△상식△역사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면접 때 큰 도움이 됐어요. 또한 저는 의모도 특별히 화려하지 않고, 발성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했고요.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Q7. 많은 뉴스나 행사 진행을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선 뉴스 앵커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달할 때였습니다. 특히 저는 △CNN△BBC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해서 전달을 했는데, 언론인으로서 뿌듯함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 활동 기간 내에 남북통일까지 아니더라도 그 직전까지는 내 입술로 보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와대 포럼MC로서는 29살 때의 첫 포럼이 기억에 남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장관들△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저는 처음으로 청와대에 출입했던 때라 정말 떨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씩 다 맡긴다는 기도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 도 언론 고시를 준비할 때 공부했던 시사상식이 멘트로 술술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엔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덕분에 지금까지 각종 정부부처 포럼과 국제 행사MC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8. 뉴스 진행을 할 때에 있어 자신만의 팁과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뉴스의 기본은 사실 전달입니다.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하죠. 물론 텔레프롬프터*가 있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저는 새벽 6시 뉴스가 있다면 새벽 4시에 기자들 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이템 회의부터 기사에 따른 앵커멘트 작성에 참여하죠. 또한 과장된 멘트로 뉴스를 전하는 앵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 다. 저는 뉴스앵커가 시청자를 선행하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담백하게 멘트를 작성합니다. 동시에 시청자들이 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는 지인들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완벽주의자이기도 하고, 작은 실수도 시청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젠대 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

수박에 없습니다. *텔레 프롬프터 : 테이프가 돌면서 출연자에게 대사 등을 보이게 하는 장치

Q9.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언론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피니언 리더' 가 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명해져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지나치게 유명하면 뉴스를 진행할 때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 내용보다 아나운서에게 관심이 더 쏠려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시청자들이 제 이름은 몰라도, "저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는 믿을 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서

Q10.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일관성'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있어요. 저는 잘 될 때 흥분하지 말고, 안 될 때 좌절하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가고 늘 다짐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꾸준한 모습을 보이 기 위해 노력하고요. 일을 할 때에도 △대본 수정△대본 안 기스관객과의 소통△준비를 1년 차 때처럼 지금도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10년 넘게 방송을 했으면 대본 없이 에드립만으로 몇 시간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겸손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겠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열심히 해야만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길 거라고 생각해요.

Q11. 앞으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오피니언 리더' 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혼기념마다 봉사(외) 기부 하는 것도 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대학원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며 제3세계 여성 인권 문제, 난민 문제를 해결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에티오피아에 학교를 짓고 싶은데 꿈을 이룰 수 있겠지요?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실제 눈앞에 있는 듯 살아있는 자연색

TV를 넘어 새로운 비전이 되다

QLED 8K

QLED 8K의 놀라운 화질을 가까운 매장 또는 삼성닷컴에서 경험해보세요